

“정부·외부기관들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

박준홍 전주시 덕진지역자활센터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당선

박준홍 전주시 덕진지역자활센터장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박 신임 협회장은 지난 25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기총회에서 전국 24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표하는 제11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신임 협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정부와 외부기관들에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며 회원기관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활력 충전소가 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전국의 자활 참여주민과 자활 종사자의 권익을 위한 헌신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협회장은 전북자활협회장과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사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주시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자전거대올마당 등에 참여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박 협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자활센터 위상과 역할 정립 △자활 참여주민의 권익향상 △자활지원법 제정 및 근로빈곤층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자활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경제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강화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기업업권 및 정부부처 일자리 창출사업 등 다각적인 자활사업 연계방안 모색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채규남 기자

효자3동, '더불어 사는 동네만들기 차 나눔행사' 열어

전주시 효자3동에서는 지난 26일 효자문화의 집에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동네만들기 차 나눔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해바라기봉사단, 자율방범대 등 자생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허브와 정기기부(CMS) 지정기탁을 했으며 특히 전주마트, 호박촌, 광일실업에서 참석해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기기탁하여 착한가게에 동참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자생단체, 지역주민, 기업체 대표들은 더불어 사는 동네만들기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네트워크 만들어 나가는데 동의했다.

효자3동은 복지허브와 일시기부 지정기탁 후원금을 전액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해 복지후원자 발생 시 즉시 후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효자3동 관계자는 “이번 나눔에 재능기부와 물품후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착한가게 월 3만원 이상, 착한가정 월 2만원 이상, 기타 월 5,000원~10,000원 이상 CMS 후원 약정으로도 참여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채규남 기자

제일로타리클럽 회원,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 동참

전주 제일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제일로타리클럽 3670지구 회원들은 지난 26일 진북동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등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따뜻한 행복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했다.

나눔 행사는 설 명절에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지낼 독거노인 등 소외 가정들에게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유강수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드리고자 준비하였다.”며 “나눔의 기회를 가지니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최춘희 진북동장은 “항상 나눔과 봉사에 열정을 바치는 회원님들이 진북동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동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중화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열어

중화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2018년 1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복지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 돌보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이루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해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정산보고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규 위촉된 김덕성 독거노인 관리사도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복지실태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동네복지 실현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현준 협의체 위원장은 “올해는 좀더 적극적인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알림

▲전북PD협회(회장 황운택) 신년회 및 2017 올해의 PD상 시상식=일시: 2월 2일(일) 오후 7시 장소: 전주 오펀리스 웨딩홀



삼천2동 통장협의회, 삼천동막걸리골목 대청소 실시

삼천2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5일 관내 삼천동막걸리골목 일제히 대청소를 실시했다.

협의회 회원 40여명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무단투기 상습지역과 골목길 및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강대선 협의회장은 “대청소로 깨끗해진 골목과 거리를 보니 뿌듯하고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삼천2동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결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행자 삼천2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깨끗하고 청결한 삼천2동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국립입실호국원 찾아 현충탑 참배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지난 26일 김성철 청장과 김현순 입실우체국장, 우정청 간부 등 20여명이 국립입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호국원 방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실시, 우체국사원들도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안보 의식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자 마련됐다.

김성철 청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우체국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경찰서, 상반기 경위이하 인사발령 간담회 가져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25일 회의실에서 '2018 상반기 경위이하 인사발령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신고식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직원들 소개와 서장 당부사항을 전하고, 새로운 근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사는 경위이하 총 34명(경위 18명, 경사 9명, 경장 2명, 순경 5명)으로, 분서 16명, 파출소 18명(전입 5명 포함)이 발령되었으며, 인사고충과 기타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윤중섭 서장은 “이번 인사는 주민을 위한 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령 한 만큼 부임지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보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9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6-37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1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9157
호지사 010-964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OLLABUR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극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원동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분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감사편지를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